

# 축산 현황 타개의 선두에 선 김우남 위원장을 만나다

고객홍보팀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가의 7월이 유독 힘겹다. FTA라는 끝나지 않을 숙제만도 버거운데 장마도 마른장마라는 생경한 단어 하에 가뭄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때, 시끄러운 농심만큼이나 머리가 복잡한 이들이 정계에도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그 중에서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우남 의원은 마음 편하지 않은 상황에 고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은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축** 축산인들에게 있어 제일 뜨거운 감자는 FTA 관련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여러 축산강국들과의 연이은 FTA 타결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김**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미래는 축산업을 지키지 않고서는 한발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2013년 기준 축산업 생산액은 우리나라 전체농업생산액 36.4%인 16조 2,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축산업은 우리 농업·농촌을

유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농업분야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보다 턱없이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만 봐도 박근혜정부의 우리 농업 확대의 민낯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실효성 있는 근본적 농수축산업 회생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비준동의안 국회통과는 용납될 수 없음을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축** 양봉계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특히 베트남과의 FTA체결이 양봉산업 등 소규모 영세농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보며 근심이 깊었습니다. 농해수위 차원에서의 대안과 향후 역할은 무엇입니까?

**김** 양봉농가의 꿀벌은 야생식물의 수분은 물론 국내 농작물 수분의 60%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국내 양봉업이 우리 농업과 기타 생태환경에 기여하는 무형의 가치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정부가 한·베트남FTA로 인해서 발생될 양봉업을 포함한 농업분야 피해를 분석하고 그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은 졸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6월 5일 국회에 제출된 한·베트남FTA의 국회비준동의안처리에 있어 국내 양봉업 등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살핀 전향적인 정부의 보완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회차원에서 이를 절대 좌시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축** 한우는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을 내다보며 미래를 그리고 있지만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이 안 돼 지금은 어렵다고 하더군요. 구제역 청정국 실현이라는 꿈, 농해수위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현실화를 위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김** 의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정부가 축산물 개방화 시대의 대책 중 하나로 그간 수차례 강조해온 우리 축산물의 해외 수출확대를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선결조건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존의 정부 규제역 예방 및 방역정책은 보다 정치하고 과학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축산농가에 솔직하게 다가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뼈를 깎는 자세로 정부가 노력해야만 우리의 규제역 청정국 지위는 회복되고 유지될 것입니다.

**축** 조금 논점을 바꿔보지요. 위원장님께서도 지역구가 제주시이신데요, 제주에서는 2년째 시행되고 있는 말고기 등급제가 특징적입니다. 말고기등급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 저는 2009년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말고기 등급판정 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말고기등급제는 국내 말고기의 생산량과 그 수요가 한정적임을 놓고 볼 때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축산농가의 더 많은 참여와 초기에 벌어지는 필연적인 홍보부족이나 기타 정책적 지원의 부족은 앞으로 더 메워가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말고기가 가지는 건강적 특성과 그 자체의 육질과 맛을 부각시킬 수 있는 등급제와 등급판정 방식에 대한 연구와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 축산 발전을 위해서는 복잡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숙제입니다. 정부와 농협에서는 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원에서도 매년 축산물의 유통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요?

**김** 정부는 계속된 FTA체결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 우리 축산 농가를 최우선에 둔 관점에서 현재의 유통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정부의 우리



축산업보호에 대한 굳은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유통구조 혁신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 보면, 우선 기존의 높은 유통비용과 수요량·생산량의 변화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격변동성의 해결입니다. 또한, 소비자와 산지 간 긴밀한 연계성 부족의 개선도 중요합니다. 유통비용은 유통단계의 축소와 유통계열화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협동조합 등을 이용해 도축, 가공, 유통을 일관되게 하는 유통체계를 마련하여 풀어내고, 시행과정의 착오를 조정하며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극심한 가격변동성의 극복은 산지와 직결된 정육식당 등의 개발과 여러 직거래 수단의 육성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축** 끝으로,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향후 강화하거나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김** 먼저, 우리 축산물 지킴이 역할을 다하고 있으신 축산물품질평가원 임직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고마움을 전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축평원의 모든 임직원 분들이 하시는 일 하나 하나가 축산농가가 애써 생산한 우리 축산물의 가치로 정해진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잘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도 엄중한 현 상황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생산·유통·판매 등의 각 분야에 대한 국회차원의 정책지원과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급정보<sup>365+</sup>